

“광주형일자리 정신 살릴 것...노동계 함께하자”

광주시 “시민자문위 구성, 임원 임금 의견 반영” 노동계 설득 나서 한국노총 “공장 착공식 앞두고 여론전...보이콧 결정 안 바꿀 것”

26일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착공식을 앞두고 광주시가 (주)광주글로벌모터스가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겠다며 지역노동계 설득에 나섰다.

광주형일자리 사업의 한 축인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지역노동계가 ‘광주시와 (주)광주글로벌모터스가 일자리 창출 사업의 핵심인 노사상생 정신을 부정하고, 현대차 등 투자자 위주로 사업을 끌고 있다’며 착공식 등 향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한다는 방침을 세운데 따른 것이다.

〈광주일보 2019년 12월 17일자 1면〉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19일 오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노사 민중협회의 산하 특별위원회인 노정협의회가 광주형일자리와 지역내 노동현안을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광주형일자리 핵심 파트너인 노동계가 사업 성공을 위해 도와달라”고 말했다.

조 부시장은 지역노동계의 광주형일자리 사업 보이콧 결정 배경으로 꼽히는

(주)광주글로벌모터스 운영과 관련해 서도 개선 방향을 일부 제시했다. 시민자문위원회 구성과 임원 임금 책정에 관해서다.

노동계는 지난 9월 광주시와 광주글로벌모터스 측에 시민자문위 구성, 임원 임금 노동자 임금 2배 이내 책정, 노동이사 제 도입, 현대차 추천 이사 경질, 원하청 관계 개선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해 공개질의했다. 노사책임 경영을 위해선 노동이사 도입이 필요하고, 현대차 출신 이사의 경우 노조를 적대시하는 인물이라 대관(정부 및 의회 대응) 업무 전문으로 차(車) 산업 문외한이라 광주형일자리 사업과 배치된다며 경질을 요구한 것이다.

자동차공장 건립에 시민 세금 등 5000억원이 투입되고, 기업 경쟁력은 공장을 잘 짓는데 달렸으며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시민자문위원회’를 꾸려 감시할 수 있게 하고, 대기업 중심 한국 경제의 고질적 병폐인 ‘하청 쥐어짜기’로 대표되는 원하청

관계 개선책 마련도 요구했다. 하지만 광주시와 광주글로벌모터스 측이 여태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자 지역 노동계가 공장 착공식을 앞두고 전격 보이콧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 부시장이 돌연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꾸려 노동계와 긴밀히 협의하고, 글로벌모터스 임원 임금의 경우 광주형일자리 사업 취지에 맞도록 향후 임금 설계 영역에 노동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조 부시장은 그러나 노동이사제 도입, 현대차 출신 이사 경질 등 노동계 요구 등 민감 현안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기 어렵다”며 피했다. 나머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성이 떨어지는 방향 제시에 그쳤다.

윤중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은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사업 성공을 위해 노동계와 만나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 착공식을 앞두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전을 펴는 광주시의 행태를 이해하기 힘들다”며 “대기업에 끌려가지 말고 취지에 맞게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사업이 운영되

도록 광주시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보이콧 결정을 바꾸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주형일자리 사업은 노사상생 정신을 바탕으로 광주 빛그린산단에 자동차공장을 건립, 운영하면서 지역 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단순히 자동차를 만들어 팔자는 게 아니라 노동자 임금 평균을 대기업 노동자 임금 절반인 3500만원 수준으로 하여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임금(복지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임금 체계, 노사 갈등 등 노동현안을 지역 노동계가 참여한 노사민정 협의체에서 조정해 노사 분규를 최소화함으로써 사업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 현대차, 광주은행, 지역 기업 등 36개 기관·기업은 2300억원을 출자해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만들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빛그린 산단에 2021년 상반기에 연 10만대 규모의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정규직 1000여명을 고용해 같은 해 하반기부터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현대차로부터 위탁받아 생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여수YMCA(이사장 이대성)는 최근 여수시 청소년수련관에서 도시와 도서 지역에서 자전거 이용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수YMCA 제공)

여수YMCA ‘자전거 이용 활성화’ 토론회

여수YMCA(이사장 이대성)는 최근 여수시 청소년수련관에서 도시와 도서 지역에서 자전거 이용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최근 전라선 폐선철도 부지 자전거 전용도로 개통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늘고 있는데도 관련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데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여수 지역을 비롯, 광주·전남지역은 자동차 중심의 도로교통과 도시계획으로 출퇴근 및 관광 등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어려움으로 자동차 이용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참가자들은 토론회를 계기로 여수가 COP 28 유치를 희망하는 기후보고국 제선도도시 위상에 걸맞는 친환경 교통분담을 개선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주차대란 등의 교통 문제 뿐만 아니라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실효성 있는 자전거 이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적 요소를 극복한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도출하는 데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여수광양항 스마트 항만, 목포항 자동차 수출 중심항 육성을”

전남도 ‘해양항만 추진단 워크숍’

전남도는 19일 순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2019년 해양항만 활력 추진단 워크숍’을 열어 여수광양항과 목포항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15년 9월 출범한 전남도 해양항만 활력 추진단은 자문 그룹과 전문가 그룹으로 나뉘어 36명으로 구성됐다. 2016년부터 워크숍을 매년 1회 개최하고 다양한 시책을 제안해왔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역임한 이은 단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해양항만 관련 기관과 업체 관계자, 공무원, 순천대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현덕 순천대 물류학과 교수와 백인흠 목포해양대 해상운송학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김현덕 교수는 미중 무역전쟁과 정부의 신북방정책·신남방정책 등의 환경 변화를 설명하고, 여수광양항 활성화 방안으로 스마트 항만·친환경 항만·터미널 통합 등을 제시했다.

스마트 항만은 하역장비·이송장비 자동화, 물류 정보 실시간 공유 등을 포함하고, 친환경 항만은 이산화탄소·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을 줄이기 위해 저유황유·LNG 추진선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터미



비즈니스 리더스 아카데미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9일 순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열린 제2기 비즈니스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기관단체장과 기업인들에게 도정 비전과 현안을 설명하고, ‘2020년 세계경제 트렌드에 따른 전남도 대응전략’을 주제로 논의했다.

널 통합은 선박의 대형화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이다.

백인흠 교수는 목포항의 강점·약점·기회·위협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강점·기회요인 전략으로 서남해안권 중추 항만 육성, 자동차 수출 중심 항만 육성, 해양관광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서남해안권 중추 항만 육성은 목포신항과 배후단지 건립을 연계하고, 최신 하역장비를 갖추는 것 등을 포함한다. 자동

차 수출 중심 항만 육성은 저장기지 확충·기준 저장기지 통합 운영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해양관광 활성화는 크루즈부두·마리나항·KTX 연계상품 등을 개발하는 것이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도에서 건의한 신규사업이 정부 예산에 대거 반영돼 여수광양항과 목포항 활성화에 정신이 되고 있다”며 “워크숍에서 제안된 내용을 다듬어 2020년 신규사업으로 발

주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정부예산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광양항의 경우 배후단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세풍 일반산업단지 부지 매입 21억원, 낙포부두 리뉴얼 21억원, 내부 순환도로 개설 5억원 등 3건 47억원이다. 목포항의 경우 목포신항 해상풍력 자원부두 신설 및 배후단지 개발 사업비로 2180억원을 건의한 상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내년부터...38억 예산 확보 영유아 양육 부담 경감 기대

광주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를 내년부터 전액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차액보육료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가 정부 지원 보육료 이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보육료다.

그동안 광주시는 취약계층(법정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 셋째 이상

아동에 대해서만 차액보육료를 지원했다.

광주시는 영유아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38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만5000여 명의 부모가 양육부담을 줄이게 됐다.

강영숙 광주시 여성가족정책관은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이 광주시 영유아 부모의 ‘아이 키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함께 키우고 함께 행복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내년 배드민턴·양궁대회 국비 3억1천만원 확보

광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년도 국제경기대회 지원사업 공모에서 배드민턴과 양궁이 선정돼 국비 3억1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2020 광주 코리아 마스터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는 1억8000만원을, ‘2020 양궁 아시안컵 2차 대회’는 1억3000만원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다. 특히 양 대회에는 광주 출신 선수가 나란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관

심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광주체고에 재학 중인 안세영 선수(배드민턴, 2학년)와 안산 선수(양궁, 3학년)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지난해 공모에서는 국비 9000만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으나, 예산을 절감하려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선 성과라고 시는 설명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정읍은 지금 상화차의 계절!
확 달라진 상화차거리,
그리고 정읍만의 특별한 차 한잔!

맛과 향, 건강까지~
30년 세월 녹아든
전설의 상화차 거리!
정읍의 자랑 속지황과
생강과 대추 등 스물 여 가지 약재를
사랑과 정성으로 달여
밤과 은행, 잣 등 고명을 얹으면
정읍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한 잔의 보약,
바로 정읍의 상화차입니다.

상화차

오랜 전통과 정성이 깃든,
깊은 맛의 상화차!
상화차 거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차 한 잔에 담긴 사랑과 행복~
따뜻한 정과 감동은 텀입니다!

정읍시
JEONGEUP-SI